뉴스홈 | 최신기사

'생일에 27득점' 역전승은 이끈 임동혁 "교체 투입돼도 감시해"

송고시간 | 2022-03-09 17:52











임순현 기자 기자페이지



서로를 격려하는 대한항공 임동혁(왼쪽)과 정지석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9일 V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기록인 47개의 범실을 기록하고도 한국전력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23번째 생일을 맞은 임동혁이 선발이 아닌 1세트 후반 교체 투입되고도 혼자서 27점을 내며 팀 승리를 이끈 덕분 이었다.

60.97%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한 임동혁은 특히 세트 스코어 1-2로 밀렸던 4세트에서만 11점을 내며 짜릿한 역전 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임동혁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오늘이 생일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경기를 보러 와서 경기에 투입되면 잘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생일에 못 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더 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비록 생일에 선발 명단에 오르지는 못 했지만 교체 투입된 뒤 팀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임동혁은 충분히 만족했다.

임동혁은 "물론 선발이 제일 편하기는 하지만 어떤 자리라도 내 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교체 투입되더라도 불만 없이 경기에 투입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도 임동혁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을 높게 평가했다.

틸리카이넨 감독은 "임동혁이 생일이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면서 "오늘 경기는 임동혁이 자기가 가진 강점을 보여 줄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가까스로 승리를 챙기기는 했지만 역대 최다 범실을 기록한 부분에 대해선 임동혁과 틸리카이넨 감독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틸리카이넨 감독은 "전반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배구는 아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방법을 찾은 것이 좋았다"면서 "상대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혁도 "경기 중간 우리 팀의 흐름과 패턴이 깨져서 공격에서 안 맞는 모습이 나왔다"면서 "뒤늦게라도 호흡을 맞출수 있어서 우리 팀이 웃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임동혁 27점' 대한항공, 한국전력에 3-2 진땀승...4연승 질주

선두 대한항공 틸리카이넨 감독 "계속 꿈꾸고 멈추지 않을 것"

남자프로배구 재개...대한항공, 링컨·정지석 활약에 선두 질주(종합)

코로나로 18일간 중단된 남자 프로배구 5일 재개

'임동혁·정지석 펄펄' 대한항공, KB손해보험 누르고 선두 수성(종합)

대한항공 임동혁, 교체투입 후 23득점..."제자리 찾는 중"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9 17:52 송고

#대한항공 #임동혁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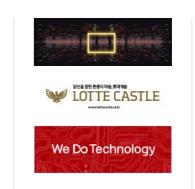
▶ 01:18 **▶** 02:22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크는 그대로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7 찰에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_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_____ 으 59 안 맞아"(종합)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 □ 50 재개 예열?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동록번호 문화,나00009 | 동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